

PE10) 주요 노지작물의 재배적지 구분 연구

정명표 · 심교문 · 김용석 · 강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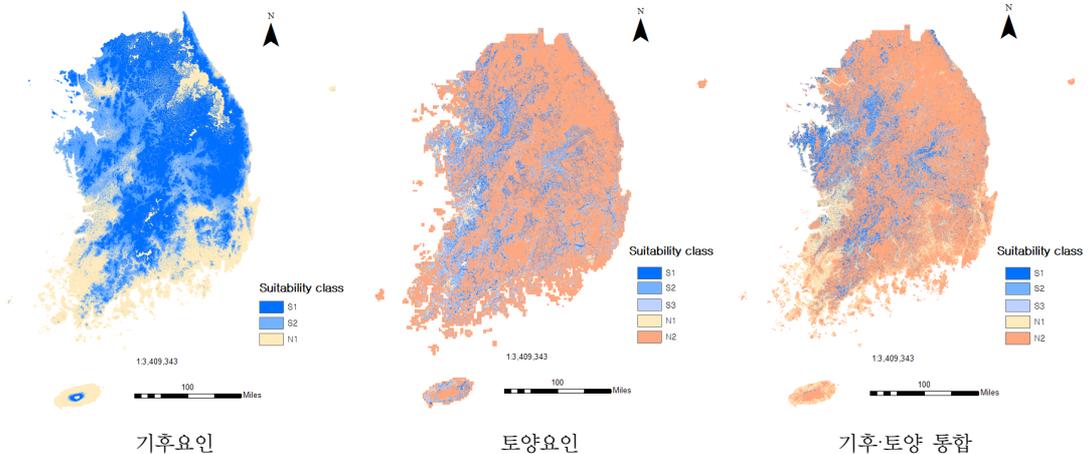
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

1. 서론

현재 노지작물의 재배적지는 토양, 기후 등 개별 조건에 의해 각각 구분하여 서비스하고 있어서 농업현장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. 농작물의 재배적지 구분은 토양, 기후 등 각종 환경조건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며, 기후정보와 토양정보의 종합적인 고려를 통한 재배적지 분포도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장단위 상세 서비스가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. 농촌진흥청 토양환경정보시스템(<http://soil.rda.go.kr>)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토양기반 재배적성도 서비스는 작물특성에 따른 기후조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,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생육·품질관리시스템에서는 기후조건만을 기준으로 10개 작목에 대해 재배적지를 서비스하고 있다.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토양 및 기후 통합 조건에 의한 노지작물의 재배적지 기준을 재검토 및 재설정하고, 각 작물의 재배적지 구분 방법론(최대저해인자법, Analytic Hierarchy Process 등)에 대한 실증 연구를 2018년부터 수행하고 있다.

2. 결과 및 고찰

과수작물, 식량작물, 채소작물에 대해 연차적으로 재배적지 구분이 수행될 것이며, 향후, 작물별 재배적지 분포도의 농장단위 상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.



3. 참고문헌

- Brinkman, R., Young, A., 1976, A framework for land evaluation, FAO.
- Holzhammer, A., Calanca, P., Fuhrer, J., 2010, Evaluating Climate Suitability for Agriculture in Switzerland. 5th International Congress on Environmental Modelling and Software. 610. <http://scholarsarchive.byu.edu/iemssconference/2010/all/610>.
- Zolekar, R. B., Bhagat, V. S., 2015, Multi-criteria land suitability analysis for agriculture in hilly zone: Remote sensing and GIS approach. Computers and Electronics in Agriculture, 118, 300-321.

감사의 글

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시험연구사업(PJ013548)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.